

<번역 논문>

루터 성경의 재검토

— 문제, 원칙, 결과 및 남은 문제 1) —

크리스토프 켈러 저*

유은걸 번역**

종교개혁의 영속적인 업적 중 하나는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서를 번역한 것이다. 성서 역본 중 루터의 번역은 특별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까지 이 번역은 사람들의 입이나 문헌, 그리고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독일어 역본이다. 묘지에서 울면서 시편 23편을 낭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틴 루터의 용어를 거의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다른 언어의 책을 옮기는 번역자가 적절한 성경 인용구를 찾는다면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을 고를 것이고 대개는 루터 성경을 택할 것이다.²⁾ 이 성경의 번역을 바꿔도 좋은 것

* Christoph Kähler, 이 글은 “예술과 업무를 위한 번역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2013년 17-19일에 열린 로스톡 대회에서 발표했던 주제 강연이다. 이 강연에서 나는, 독일 개신교회 연합(EKD) 이사회가 2010년 발족시킨 루터 성경 감수 위원회의 과업 수행 및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코리나 달그윈(예나), 요하네스 프리드리히(슈팔트-벤델), 크리스토프 켈러(라이프찌히, 위원장), 마틴 카러(부퍼탈, 신약 분과 책임), 크리스토프 레빈(빈헨, 구약 책임), 게릿 놀텐마이어(데트몰트), 베르너 뢰케(베를린), 마틴 뢰젤(로스톡, 외경 책임). 2011년 9월까지의 엔스 슈뢰터(베를린)가 신약 책임을 맡은 바 있다.

** Universität Heidelberg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Dr. theol.)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 신약학 교수. jakob38@hanmail.net.

- 1) Christoph Kähler, “Erneute Durchsicht der Lutherbibel: Probleme, Grundsätze, Ergebnisse und offene Fragen”, Melanie Lange, Martin Rösel, hrsg., *Was Dolmetschen für Kunst und Arbeit sei: Die Lutherbibel und andere deutsche Übersetzungen. Beiträge der Rostocker Konferenz 2013* [예술과 업무를 위한 번역이란 무엇인가: 루터 성경과 다른 독일어본. 2013년 로스톡 모임의 기고문들] (Stuttgart: Evangelische Verlagsanstal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165-181. 이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저자가 인용한 책 제목도 [] 안에 우리말로 번역하여 주었다.
- 2) 루터 성경의 인용에 대해서는, G. Büchmann, W. Robert-tornow, W. Hofmann, *Geflügelte Worte. Der klassische Zitatenschatz, 43., neu bearbeitete und aktualisierte Auflage* [날개 달린 단어들. 고전적인 인용의 보고, 신정 43판] (Berlin: Ullstein Taschenbuch Verlag, 2007), 1-65

인가? 대체로 사람들은 이 말에 부정적으로 답변할 것이다. 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교회의 역본인 “마틴 루터의 성경”³⁾을 개정할 것인지를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1. 문제

1.1. 일반 문제

루터 성경이나 가톨릭의 통일번역본, 취리히 성경 같은 역본은 대개 예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나 개인이나 공동체가 성경을 읽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교회의 담을 넘고 영적인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친숙한 성경 번역에 일말의 변화조차도 거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해할 만한 일이다.

이런 사실이 루터의 이름으로 1545년부터 보급된 “독일어 성경전서”(Biblia/ das ist/ die gantze Heilige Schrift Deudsch)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표준 독일어가 발전하고 확립되는 데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기여한 것이다.⁴⁾ 다음과 같은 평가도 존재한다. “개신교 경건의 역사는, 대략 몇 세기에 걸쳐 비교할 만한 영향력을 보여준 다른 문서를 알지 못한다.”⁵⁾

전문성에 따라, 혹은 개인적 경험이나 해당 기관의 관점에 따라 루터 성

와 1장에 대한 서설을 참고하라. 특이한 것은, 이들이 1984년판(신약)이 아니라 1956년판(신약)과 1964년판(구약)을 기본으로 연구하였는데, 몇몇 구절에서는 “최초의 루터 성경”을 참조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옮긴 역본”이 이미 굳어버려 정형화된 표현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1).

- 3) 이하 “루터 성경”, 혹은 “루터 1984”라고 할 것이다. 1957년 성경 전체의 개정을 시작한 이래로 1984년 신약성경의 개정이 끝나고 나서야 개정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독문학자들의 매우 다양한 평가 또한 참조하라. Ursula Götz, “Gerne ändert Luther die Wortstellung. Luthers Arbeit an seiner Bibelübersetzung aus sprachhistorischer Perspektive” [“루터는 줄거 어순을 변경하였다.” 언어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루터의 성경번역 작업] (Stuttgart: Evangelische Verlagsanstal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꺾는 본 대회에서 이 주제로 강연하였다.
- 5) A. Beutel, “Es ist mein testament und meine dolmetschung, und sol mein bleiben und sein”: Bemerkungen zur theologischen und sprachlichen Klassizität der Luther-Bibel und zur Problematik ihrer Revision [“이것은 나의 유언과 번역이고, 나의 것으로 남아야 한다”: 루터 성경의 신학과 언어상의 고전적 성격 및 루터 성경의 개정], C. Dahlgrün, J. Haustein, hrsg., *Anmut und Sprachgewalt: Zur Zukunft der Lutherbibel* [아름다움과 언어적 뛰어난. 루터 성경의 미래에 대해서]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145-180. 179f에 따르면 오늘날 학문적 배경을 갖추지 않은 독자들의 어려움을 ‘각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을 고치는 것에 대한 반감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독문학자들은 흔히 루터 생존 시기에 나왔던 역본 자체에 손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정으로 인해 기념비적인 언어가 훼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루터역의 원래 판본에 그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제안하기까지 한다.⁶⁾ 그러나 루터역 영인본의 판매 부수는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이 성경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예증한다. 더구나 그들의 관심사 역시 상이하다.⁷⁾ 오늘날 루터의 언어를 읽을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은 16세기 독자들이 루터의 말을 배우느라 겪었던 난관과 비슷한데도,⁸⁾ 반대론자들은 ‘복음’ 안의 거리끼는 것이 아예 제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루터 성경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학적 비판자들에게 있어서 이 작업은 변개나 심지어 왜곡에 해당한다. 이런 의심은, 게오르크 뢰러(Georg Römer)가 1546년 루터 사후, 명백한 오류와 루터 자신의 개정안을 모아 유작(遺作)으로 역본을 출간하려 했을 때 겪은 것이다.⁹⁾ 점점 심해진 전방위 공격은, 오늘날까지 1545년의 판본이 루터 성경의 ‘최종판’으로 보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사소해 보이는 변경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1975년 개정판에 대한 비판 역시 잘 예시한다. 게르하르트 크라우제는 이 문제를 마태복음 28:20의 단어 배치와 관련하여 지적하였다. “세상 끝날까지”(bis an der Welt Ende)라는 어구에서 속격 ‘세상’을 맨 뒤에 배치함으로써 “세상의 끝날까지”(bis an das Ende der Welt)로 처리했다는 것이다.¹⁰⁾ 개정 작업 때문에 “선교하는 공동체가 늘상 겪는 투쟁과 고통, 순

6) 참조, T. Cramer, “Wider die Verständlichkeit um jeden Preis: eine Invective” [어떤 값을 치루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반대하여 비난함], C. Dahlgrün, J. Haustein, hrsg., *Anmut und Sprachgewalt: Zur Zukunft der Lutherbibel*, 123-130.

7) 이에 대해서 S. Meurer, “Setzt sich die revidierte Lutherbibel durch?”, *Verrat an Luther? Bilanz einer Bibelrevision* [개정된 루터 성경은 공인받을 것인가? 실린 곳: 루터에 대한 배반? 성경 개정의 결과물]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7), 85-96, 89f. 모이러는 이곳에서 각 성서공회들이 영인본을 발간한 경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결론은 별다른 독자층이 없다는 것이다. 이 역본을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들에게 따르면 루터 성경의 원판본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나 독문학자 등 작은 부류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

8) 참조, C. Dahlgrün, J. Haustein, hrsg., *Anmut und Sprachgewalt: Zur Zukunft der Lutherbib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179f.

9) 이에 대해서 참조, S. Michel, “Der Korrektor der Bibel. Luthers Übersetzung der Heiligen Schrift in den Händen Georg Römers (1492-1557)” [성경의 교정. 게오르크 뢰러의 손에 넘겨진 루터의 성서 역본], S. Michel und C. Speer, hrsg., *Der Chronist der Wittenberger Reformation*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의 기록자], *Leucorea-Studien* 15 (2012), 181-199. 본서에 실린 S. Michel의 글도 참고하라.

10) G. Krause, “Theologische Fragwürdigkeiten der Luther-Bibel von 1975 [1975년 루터 성경의

교의 배경이 되는 이 세상의 끝을 강조하며, 단순한 ‘종말’은 상대화하려는 본 절의 의도가 훼손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란 것을 기독교 신앙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¹¹⁾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교회 회중이 성서 본문에 대하여 느끼는 친숙함이다. 설령 그것이 소수의 본문에 해당할 뿐이라도 그렇다. 세례, 입교, 장례예배에 흔히 쓰이는 성구는 성경 및 그 내용에 대하여 피상적인 지식과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루터의 번역을 개정할 때, 널리 알려진 본문과 그 의미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본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누가복음 2장의 탄생 기사를 실례로 들어보자. 1975년 개정판은 이 본문을 지나치게 바꾸는 바람에 성도들에게 친숙한 어감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1년도 지나지 않아서 5가지 수정이 신속하게 필요했다. 그러나 1976년에 미미하게 수정한 본문에 대하여 1984년 거의 60개에 달하는 개정이 다시 있었고,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기존의 성서 역본에 집착하며, 검토자가 본문에 반영된 감정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교회에서 사용된 역본이 지속적인 변화 - 그것이 필요하다면 -의 과정을 거쳤던 사실은 엄존한다. 여러모로 저항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있었지만, 교회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시도된 역본 중 구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 역본들은 필요할 때마다 성서 원어에 기초한 본문을 토대로 학문적인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종교개혁의 성서이해에 부합되는 것이고, 루터 번역은 무엇보다 초역자(루터) 스스로가,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꾸준히 이 역본을 점검해 왔다는 사실에서 잘 확인된다. 1522년의 9월에 나온 초판은 12월본이 나왔을 때 이미 여러 군데가 달라져 있었다. 이런 수정은 1534년 발간된 비텐베르크 전서(Wittenberger Vollbibel)에서도 발견되고, 루터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정을 거쳐 1545년 최종판을 내놓기까지 계속되었다.

몇 세기를 지나는 동안 루터 성경이 여러 곳에서 판을 거듭하는 동안 서로 다른 변화를 겪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세기에 이르러서 이 차이는 더욱 커져서, “신뢰할 만한 루터 성경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었다.¹²⁾ 이 개정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모두 논의할 수는 없

신학적 의문점”, *ZThK Beih.* 5 (1981), 75-173; 113-121.

11) *Ibid.*, 120. 1984년 신약의 재개정에서 원래의 어순은 다시 회복되었다.

12) 이에 관해서 참조, L. Schmidt, “Die Anfänge der ersten kirchenamtlichen Lutherbibelrevision [첫번째로 교회가 시행한 루터성경의 개정], K. D. Fricke und S. Meurer, hrsg., *Die*

다.¹³⁾ 회고해 보면 그 역사는, 개정된 성경의 전부나 일부가 공개되고 난 직후 그 결과물이 공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1892년에 나왔던 개정본이 1912-1913년에 개편되어야 했고, 또 1921년에 또 다시 다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신약성경의 1956년, 1975년, 1984년의 상이한 판본은 그 결과물들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호의적이지 않았는지를 예증한다. 그 평가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대개 혹독한 비판은 마지막 개정판이 받게 되고, 그 전작들은 다소간 경감된 수준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1984년 완료된 개정판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몇몇 사용자들은 그보다 1912-13년판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이 판본이 저작권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에도 있다. 물론 이마저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28년 에마누엘 히르쉬(Emmanuel Hirsch)의 날선 비판은 좋은 예이다. “루터 성경의 언어는 1912년판에서 오늘날 독일어에 매우 가깝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이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때때로 번역 지침이 그 일관성을 잃기도 했다. 그 결과, 최근의 학교 독일어와 루터가 사용한 독일어가 뒤섞인 역본이 등장했는데, 많은 이들의 어감상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¹⁴⁾ 히르쉬의 평가는 이론상 타당한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가 제안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어떤 개정판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¹⁵⁾

1.2. 1984년 루터 성경의 문제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 개신교 연합의 요청으로 수행된 방대한 연구 결과,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연구의 주안점은 구약과 신약의 본문이 얼마나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는지에 모아졌다. 그동안 검토

Geschichte der Lutherbibelrevision: von 1850-1984 [루터 성경 개정의 역사: 1850년에서 1984년까지]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1), 37-129. 41쪽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고 있다. C. Mönckeberg, *Beiträge zur würdigen Herstellung des Textes der Lutherischen Bibelübersetzung* [루터역본 본문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기고] (Hamburg: Nolte & Köhler, 1855).

13) 같은 곳을 참조하라.

14) E. Hirsch, *Luthers deutsche Bibel. Ein Beitrag zur Frage ihrer Durchsicht* [루터의 독일어 성서. 그 개정의 문제에 대한 기고]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28), 4f.

15) 에마누엘 히르쉬가 1928년 구약 위원회 두 분과 중 하나에 초대 받은 일과, 이곳에서 그가 겪었던 갈등, 1930년 5월부터 그 자격이 연장되지 않았던 일 등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K. D. Fricke, “Die Fortsetzung der Revisionsarbeit von 1870 bis 1956” [1870년에서 1956년까지 개정작업의 재개], K. D. Fricke, S. Meurer, hrsg., *Die Geschichte der Lutherbibelrevision: Von den Anfängen um 1850 bis 1984* [루터성경 개정의 역사]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1), 149-187, 특히 162-165.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단편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⁶⁾

a) 1964년경에는 구약 성경의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밝히거나 보충하는 작업에 대해서 열려 있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었다. 약 2세대를 거치는 동안 고대 근동어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었고, 이것은 어려운 히브리 단어나 구약 시대의 여러 배경 정황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했다. 또 1964년에 이미 성서 역어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루터 성경만의 언어적 특징과 개성이 좀 더 보편적인 성격을 갖도록 다듬은 것이다.

b) 신약 성경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1975년판의 표현들이 부분적으로 “생존”하도록 한 타협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였다. 경우에 따라 원문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c) 외경 부분은 계획 당시에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토 작업이 시작되자 구약과 신약보다 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지혜서와 집회서의 몇 부분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루터 자신이 아니라 그의 비텐베르크 동료들이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을 원문으로 취급하였는데, 그것은 대체로 자의적인 것이다. 어떤 본문은 무엇을 원문으로 삼아야 할지를 오늘날에도 분명히 정할 수 없다. 현존하는 루터 역본은 지금 손에 짚 수 있는 비평적 원문과는 거리가 멀고, 다른 어떤 역본과도 호환이 불가능한, 그만의 장절 구분을 하고 있다.

루터 성경의 역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변화의 사례로 마가복음 9:4-5를 꼽을 수 있다. 이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는 변형된 형태로 산 위에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4절). 그런데 헬라어 본문의 9:5는 다음과 같은 어구로 시작된다. *καὶ ἀποκριθεὶς ὁ Πέτρος λέγει τῷ Ἰησοῦ*. 루터 성경은 1545년부터 1912년까지 정확하게 옮겼다. “Vnd Petrus antwortet / vnd sprach zu Jhesu(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한다/ 그리고 예수에게 말한다).” 1975년판은 “Da nahm Petrus das Wort und sagte zu Jesus(그 때 베드로는 말을 받아 예수에게 말했다)”로 번역했다. 1984년 개정판은 이 표현을 고쳤으

16) 레빈(C. Levin), 뢰젤(M. Rösel), 카러(M. Karrer)가 본 회합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서(역자 주: Melanie Lange and Martin Rösel, *Was Dolmetschen für Kunst und Arbeit sei* [예술과 업무를 위한 번역이란 무엇인가]: *Die Lutherbibel und andere deutsche Übersetzungen. Beiträge der Rostocker Konferenz 2013* (Stuttgart: Evangelische Verlagsanstal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의 다른 곳에서 보고하였다.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루터 성경의 현재 역본은 여러 각도에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나 1912년의 것을 살리지 않고 1956년 개정판으로 회귀했다. “Und Petrus fing an und sprach zu Jesus(그리고 베드로는 시작하였고 예수에게 말했다).” 베드로 자신이 변모한 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한 바 없고, 그가 참여하지 않았던 세 사람의 대화 가운데 대답하는 어색함을 이런 번역으로 해결하려 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환상 중 경험한 것에 반응하며 말한 것이라는 측면은 그 번역으로 가려지고 말았다.

1.3. 용어 문제 - “검토”인가 “개정”인가

2010년 이후 루터 성경의 “검토”(Durchsicht)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개정”(Revision)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혹 검토와 개정이 의미 차이가 없는 동의어인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되었다. 루터 성경의 새로운 판본이 나올 때마다 덧붙였던 부제(副題)에는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지만 실제로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1892년 이래로 다음과 같은 부제가 사용되었다.

- 1892년 “검토판”(durchgesehen)
- 1912년 “새 검토판”(neu durchgesehen)
- 1596년 신약 “개정판”(redivierter Text)
- 1964년 구약 “개정판”(revidierter Text)
- 1970년 외경 “개정판”(revidierter Text)
- 1975년 신약 “개정판 1975”(revidierter Text 1975)¹⁷⁾
- 1984년 신약 (외경과 구약) “개정판”(revidierter Text)
- 1999년 새 정서법에 따른 검토판 (Durchgesehene Ausgabe in neuer Rechtschreibung)

2010년에 독일 개신교 협의회는 “검토”를 요청했다. 이 명칭은 지금까지 사업명으로 공표되었는데, 우리의 주안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기존 역본이 추구한 것과는 달리, 현대 표준독일어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지도 위원회의 위원들이 1984년의 개정판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1545년판을 참고하고 1912년 신정판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이 작업은 개정 작업 이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마도 중국에는 “개정판”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공동의 노력의 결과물인 만큼 1964년과 1984년의 개정 당시처럼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¹⁸⁾

17) 똑같은 부제를 1976년본은 신약 본문에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개정 이상 수준의 변화를 담고 있다!

2. “검토”의 기본 원칙

2.1. 검토 기준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루터 성경, 곧 1984년의 개정판은 우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언어적 기반이 된다. 이 번역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대체로 수용된다. 루터 성경은 그 고풍스러운 언어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근본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¹⁹⁾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풀어 옮기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본문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 기술은 피할 것이다. 여러 음절을 가진 복합어를 지양하여 분명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쓸 것이다.

점검의 첫 번째 요건은 원문, 곧 히브리 구약성서의 비평본,²⁰⁾ 칠십인역에 전해져 오는 외경,²¹⁾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표준 본문²²⁾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 개신교 협의회가 2010년 제시했던 목표 중의 하나이다. 루터 성경에 충실하라는 두 번째 요구는 검토자, 전문 자문가, 지도 위원회가 1545년 루터 최종판과 비교하여 따른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마틴 카러(Martin Karrer)가 2010년 요한계시록 본문을 1984년 개정판 뿐만 아니라 1545년판과 비교하여 몇몇 구절에 대해서는 구판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을 때 분명해졌다. 이후 검토자 및 자문 그룹이 이전 번역을 참고하는 것이 교정 작업의 중요 과정이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루터가 1545년 언어적으로 더 정확히 번역했고 오늘날에도 잘 이해가 되는 구

18) 2004년 1월 주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법률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sgesetz [상업적 권리와 저작권]” 106 (2004), 325-328; N. Lühring, “Die Revision der Lutherbibel - eine schöpferische Leistung? Zum Bearbeiterurheberrecht nach §3 Urheberrechtsgesetz [루터 성경의 개정 - 창조적인 작업인가? 저작권법 3조에 따른 작업자의 저작권]”, *Wettbewerb in Recht und Praxis* 49 (2003), 1269-1368.

19) 참조, S. Seyferth, “Wie viel Septembertestament steckt noch in der Luther-Bibel von heute? Ein Übersetzungsvergleich aus germanistischer Perspektive zwischen den Versionen von 1522 und 1984 [9월 성서가 오늘날의 루터 성경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독문학적 관점에서 본 1522년판과 1984년판의 역본 비교]”, C. Dahlgrün, J. Haustein, *Anmut und Sprachgewalt: Zur Zukunft der Lutherbibel*, 181-199. 자이페르트는 1522년과 1984년 사이에 여러 연속성을 발견하여 나 역시 놀랐다. 그가 제시한 27 사례 중 11개를 지도 위원회가 살펴 본 후 수용했다. 자이페르트가 언급한 루터 성경의 언어적 성격을 바꾸지 않았다.

20) K. Elliger und W. Rudolph, hrsg.,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서], 5. verb.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7).

21) Academia Scientiarum Gottingensis, ed.,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그리스어 칠십인역본]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8).

22) 신약에서는 Barbara Aland, Kurt Aland, Gerd Mink und Klaus Wachtel, hrsg,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7)가 가장 최근 판본을 고려하여 사용된다.

토이라면, 그 번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것은 현재 언어학과 주석적 토의 사항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을 세 번째 기준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 목적은 대규모의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번 번역어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흔히 별 생각 없이 마구 결정하는 것은 막아준다. 독문학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네 번째 측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도 위원회에는 독문학자들이 포함된다. 실무자들 역시 그들의 조언을 듣고자 노력해 왔다.

2.2. 검토 목적

이상의 검토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1) 우선 번역문이 무엇보다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 충실한지, 현재 학계의 상황에 비추어 정확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한 사례로 출애굽기 6:1을 들 수 있다. 1964/1984년 판본 이래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Da sprach der Herr zu Mose: Nun sollst du sehen, was ich dem Pharaon antun werde; denn durch eine starke Hand *gezwungen*, muss er sie ziehen lassen, ja er muss sie, durch eine starke Hand *gezwungen*, aus seinem Lande treiben”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강요받은 나머지 그는 그들을 나가게 할 것이다. 그는 강한 손으로 강요 받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두 번 사용한 “*gezwungen*”(강요받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으므로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Da sprach der Herr zu Mose: Nun sollst du sehen, was ich dem Pharaon antun werde; denn durch eine starke Hand, muss er sie ziehen lassen, ja er muss sie, durch eine *gezwungen*, aus seinem Lande treiben”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는 그들을 나가게 할 것이다. 그는 강한 손으로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신약에서는 오랜 토의 끝에 1984년판의 요한계시록 22:20이 같은 이유로 바뀌게 되었다. “Er spricht, der dies bezeugt: Ja, ich komme bald. - Amen, ja, komm, Herr Jesus!”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계시록의 이런 결미가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하며, 루터 당시에는 에라스무스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두 번째 “Ja”를 없애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r spricht, der

dies bezeugt: Ja, ich komme bald. - Amen, ja, komm, Herr Jesus!” (이것을 증언 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이 문장에 전형적인 맺구를 이루는 알파와 오메가 구절과의 운율은 파괴되지 않았다.²³⁾

(2) 우리의 검토 작업은 암시적으로 이전 개정판을 검토하는 요청도 포함 되어 있다. 주석적으로 의심스러운 판단과 불필요한 언어적 변경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루터 성경이 일반적으로 “집”(Haus)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상 “가족 구성원”(Familienverband)을 뜻한다는 사실에서 이런 문제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1964/1984본에서는 단지 사사기 11:2, 7; 15:6에서만 “가족”(Familie)이라는 단어가 선택되었다.

(3) 결국 루터의 언어와 신학이 보존되고 느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례로 시편 42편의 시작 부분을 들어보자. 이곳에서 히브리어 동사 עָרַב 가 이중으로 사용되었는데, 루터는 1545년 언어학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은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옮겼다. “WJe der Hirsch *schreiet* nach frischem Wasser / So *schreiet* meine Seele Gott zu dir”(사슴이 신선한 물을 향해 부르짖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주님 부르짖습니다). 1964/1984판부터 병행의 운율을 파괴해 가면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Wie der Hirsch lecht nach frischem Wasser, so schreit meine Seele, Gott, zu dir” (사슴이 신선한 물을 갈급해 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통일번역본은 정확하게 ‘lechzen’(갈급해 하다)을 두 번 사용한테 반해, 지도 위원회는 루터의 표현으로 회귀할 것을 결정했다.

유사한 것이 요한계시록 1:8에 해당한다. “Ich bin das A und O, spricht Gott, der HERR, der *da* ist und *da* war und der *da* kommt, der Allmächtige”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거기에 있고, 있었으며 오고 있는 전능자이다). 여기서 세 번 사용된 *da*는 헬라어 성서에는 없지만, 역문의 어감상 있어야 하는 말이다. 통일번역본은 정확하게 이 단어 없이 옮겼지만, 독일어 어감이 좋지 않다. “der ist und der war und der kommt, der Herrscher über die ganze Schöpfung”(있고, 있었으며 오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이다).

(4) 그러나 루터 본문을 보존하려는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곧 오해를 야기하는 번역은 피해야만 하는데,

23) 참조, C. Dahlgrün, J. Haustein, hrsg., *Anmut und Sprachgewalt: Zur Zukunft der Lutherbib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176.

이를 위해 독문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단적인 사례로 다소 반유대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요한계시록 3:9를 들 수 있다. 1545년판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Sihe / Jch werde geben aus *Satanas schule / die da sagen [...]*” (보라, 내가 사탄의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줄 것이다). 1956년판에 이르러서야 “Siehe, ich werde geben aus des *Satans Synagoge, die da sagen [...]*”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줄 것이다)로 바뀐다. 1975년에는 “Siehe, ich werde Leute aus der *Synagoge des Satans schicken, die [...]*”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내보낼 것이다)가 된다. 1984년의 개정판은 문장을 살짝 바꾸기만 했다. “Siehe, ich werde schicken einige aus der *Synagoge des Satans, die [...]*” (보라, 내가 몇 사람을 사탄의 회당에서 내보낼 것이다). 1545년의 표현과 같은 형태로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Siehe, ich werde einige schicken aus der *Versammlung des Satans [...]*” (보라, 내가 몇 사람을 사탄의 모임에서 내보낼 것이다)라는 번역을 채택하게 되었다.²⁴⁾

(5) 독일 개신교 협의회는, 성서 본문은 예배에 적합한 형태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지도 위원회에 한 명의 실천신학자가 참여하고, 교회음악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기사 본문은 삼위일체절 일곱 번째 주일의 본문인데 1545년판의 16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Das ist aber das der HERR geboten hat / Ein jglicher samle des / so viel er fur sich essen mag / vnd neme ein *Gomor* auff ein jglich geubt / nach der zal der Seelen in seiner Hütten”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다. 각자는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모으고 그의 장막의 영혼 수에 따라 한 고멜씩 거두라). 고멜이라는 단위는 교육 받은 독자나 청중이라 할지라도 잘 알기 어렵고, 출애굽기 16:36의 단위와 비교한다고 해도 제한적으로만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1964/1984 개정판은 독일어의 상용 단위를 적용했는데,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원개념에 상응하도록 했다. “Das ist’s aber, was der HERR geboten hat: Ein jeder sammle, soviel er zum Essen braucht, einen *Krug* voll für jeden nach der Zahl der Leute in seinem Zelte”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다. 각자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 모으고, 그의 천막 안의 사람 수에 따라 각 자에게 한 단지씩 모으라). 지도 위원회는 주석적인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을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은, 그것은 한 본문이 교회 구성원의 기억에 깊

24) 이 구절의 문제와 단락 재구성에 관해서는 본서의 테엑(A. Deeg)의 기고를 참조하라.

이 박혀 있을수록, 번역문은 적게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가 시편 23편과 주기도문이다. 현재 예식문은 헬라어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다. 주석적인 의구심이 심대하게 생기는 본문에는 더 정확한 번역을 각주에 병기하는 방법을 택한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본문이 그러한 원칙을 따랐다.

실천신학적인 관점에서 예배시 봉독하기에 적합한 역문을 만드는 것은, 루터 성경이 개신교 예배에서 92%에 이를 정도로 빈번히 사용된다는 경험칙에서 유래한다. 설교에도 루터 성경이 90% 정도 기본 본문으로 활용되고 있다.²⁵⁾

2.3. 검토 범위

비판적인 검토의 대상에는, 문단으로 본문의 내용을 구분하거나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도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달아야 할 소제목 및 그 내용도 포함된다(아래 참조). 점검하는 과정에서 루터 성경에 모아놓은 요절은 그대로 두거나, 삭제되거나 새롭게 덧붙여질 것이다. 본문에 기재된 병행 구절과 관주 역시, 난하구나 목차와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실린 도량형 환산이나 사물 및 단어 해설, 시대표와 지도 등도 점검해 보고 더 다듬을 것이다.

2.4. 2016/2017년 검토의 특징

1957년 시작해서 1984년에 끝난 개정과는 달리, 이 점검은 구약, 신약, 외경과 부록을 동시에 착수해서 함께 공개될 것이다. 모든 검토자들이 노력하여 몇 년 이내에 마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독일 개신교 협의회는 매우 조심스럽게 기본 취지를 제시한 바 있다. 바람직한 개정의 범위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성서 번역 개정의 역사와 그 난관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 50명의 전문가들이 기여할 것이고, 감사하게도 이들은 명예직으로 이 작업에 참여한다. 보존해야 할 루터 성경의 성격은 제시된

25) 참조, W. Ratzmann und G. Pickel, "Empirische Studie zur Perikopenordnung-Abschlussbericht [단락의 배치에 대한 경험적 연구]", *epd-Dokumentation* 44 (2010), 31. 봉독하는 빈도 43%가 항상, 49%가 빈번히 사용되고, 설교 본문으로는 37%가 항상, 53%가 빈번히 사용된다.

작업 수칙에 의거, 유지될 것이다. 독일 개신교 협의회가 제시한 원칙에 따르면, 1984년판 성경 중 - 모든 분과를 통틀어 - 약 삼분의 이 가량이 개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2.5. 진행 과정

1964, 1970, 1984년의 개정판 본문을 수정하는 것은 각 책 및 문서군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신약과 같은 문서군은 그룹 토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검토자가 제안한 교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제안은 6개 분과 중 하나에 배당된다. 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외경, 그리고 신약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각 분과는 제안된 내용을 수용하거나 변경하거나 반려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각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원문과 1545년 및 1984년의 본문, 개정 제안 및 간략한 이유와 투표 내용을 비교하는 표로 만들어 지도 위원회에게 제출할 것이다. 위원회는 주로 독일어의 관점에서 바꾸도록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수용 내지 거부를 하거나, 드물게 제안된 내용을 바꾸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지도 위원회는 이 작업에 2010년 4월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에 열린 첫 번째 검토자 준비모임에서, 지도 위원회가 얻은 결론을 검토자들에게 고지하고 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일관되지 못한 부분과 해결하기 어려운 견해차를 지적함으로써 달라진 본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 본문이 독일 개신교 협의회에 보고될 것인데, 이사회는 번역에서 생길 수 있는 교회 정치적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지적하고 표결에 붙이게 된다. 만일 검토자들 사이에, 또는 그들과 지도 위원회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견해차는 검토 마지막 단계에 정리했다가 적절한 방법으로 공론화하게 될 것이다.

2.6. 대상 그룹

2016/2017년판과 1964/1970/1984년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는가” 대신에, “사람들은 오늘에도 그것을 이해하는가”를 물을 것이다.²⁶⁾

26) 이에 대해서 E. Lippold, “Die Revision des Neuen Testaments der Lutherbibel 1981-1984 [1981-1984년의 루터 성서의 신약 개정]”, K. D. Fricke, S. Meurer, hrsg., *Die Geschichte der Lutherbibelrevision: Von den Anfängen um 1850 bis 1984* [루터성경 개정의 역사] (Stuttgart:

가장 손쉬운 사례를 이사야 24:2의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84년판은 다음과 같다. “Und es geht dem Priester wie dem Volk, dem Herrn wie dem Knecht, der Frau wie der Magd, dem Verkäufer wie dem Käufer, dem Verleiher wie dem Borger, dem Gläubiger wie dem Schuldner” (제사장이 백성같이, 주인이 하인같이, 여인이 시녀같이, 판매자가 구매자같이, 임대인이 임차인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와 같다). “여인”의 반대말로 시녀로 소개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Herrin”(여주인)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잘 쓰지 않는 단어인 Borger(임차인)은 그대로 둔다. 마찬가지로 지도 위원회에 따르면, 신약에 쓰이는 명사 πρόνοια는 루터가 사용한 남성형 명사 “Hurer”(몸파는 이)로 옮기는 것이 불분명한 표현 “Unzüchtige(r)”(음행자, 계 21:8; 22:15)보다 낫다.

목표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개정의 목적이 더 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 독자들을 고려한 번역을 위해서라면 어떤 값이라도 치러야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²⁷⁾ 이런 목적은 아마도 60년대 말 외르크 칭크(Jörg Zink)의 역본이나 “기쁜 소식 성경”(Gute Nachricht Bibel, 1969)에 기대했던 것이다. 그 사이에 기본 성경(BasisBibel, 2004년 이후)과 같은 진지한 계획들이 있었고, 이는 젊은 층 독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40년 전 기울이던 노력에 비해, 우리는 언어나 지식에 있어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춘 젊은이들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한다. 종교 교육가나 목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 성경이나 다른 학교 성경에서 성인 성경으로 옮겨가는 것은 늦어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가능하다고 한다.

3. 지도 위원회가 얻은 몇몇 결과물과 결정

검토의 기준과 목적은 이미 몇몇 구절에 대한 지도 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으로 분명해졌다. 작업하던 중에 벌써 수백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세히 보고하고 논의할 수는 없다.²⁸⁾ 그럼에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1), 229-249. “오늘날 말하는 것과 쓰는 언어가 아니라, 이해하는 언어를 고른다면 번역자가 굳이 개입해야 할 명백한 이유는 없다”(232) 리폴트가 “입교자”라는 말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대상 그룹을 정하는 일이 “성경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관계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27) 이에 대해서, 개정 위원회의 영향력이 컸던 회원 로타 슈미트가 생각했던 목적에 대해서 기술했던 모이러의 기고문을 참조하라. 개정 위원회의 일원이었던 교감(Studiendirektor) 슈미트는 청소년 독자들을 위해서 루터 성경의 현대화를 주창했다. S. Meurer, “Vorwort [서문]”, K. D. Fricke, S. Meurer, hrsg., *Die Geschichte der Lutherbibelrevision: Von den Anfängen um 1850 bis 1984*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1), 13-32, 특히 13.

도 불구하고 일련의 일반 원칙 중 세 가지를 이곳에서 언급해야 하겠다.

3.1. 특정 성별에 해당되는 언어

성경 번역에 사용된 언어가 여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문제 제기가 당연한 만큼, 고대 문서에 시대착오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서 본문 배후의 문화는 지금껏 루터 성경에서 감춰지지 않는다. 창세기 1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과 같이 남성위주 사 고방식에 예외적인 구절들 - 이것은 잘 알려진 중요한 본문이다 - 은 이런 맥락에서만 그 힘을 발휘하고 다른 본문의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²⁹⁾ 그 결과, 집단을 가리키는 남성과 여성명사(가령 고아)³⁰⁾는 다른 말로 대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지우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이중적인 형태(분리된 어형/나뉜 표현)에 가능한 한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는다.³¹⁾ 물론 남성주의적인 표현을 더 강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원문에서 여성적인 의미로 기록된 것을 일부러 보편적인 성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누가복음 12:45의 “여종들”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여타 역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 “주”(번역자 주: 한글 개역성경에서 ‘여호와’로 옮긴 하나님의 이름을 루터 성경에서는 ‘주’[HERR]로 옮겼다)는 계속해서 루터의 용례를 따른다. 단 작은 대문자를 사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네 히브리 자모(Tetragramm)를 가리킨다는 점을 표시한다.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한 남성적 (그리고 여성적) 이미지를 탈색시키지 않고 해석의 문제로 남겨 둘 것이다. 즉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지만, 번역을 다르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본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 은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

28) 대회에 있었던 크리스토프 레빈, 마틴 카러, 마틴 뢰젤은 본서에서 이에 대한 더 많은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29) 우리의 점검은 여성들을 언어적으로 비하하고 격하하며, 고정관념으로 대하고 배제하며 침묵하게 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지 모른다. 남성과 여성의 공존은 불충분하게 고려되거나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논거로는, 우리 번역이 문법적으로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에서 여성까지 감안한다는 사실이 있다. 심지어 이런 의미로 고친 본문들이 읽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매끄러운 해결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30) 1912년판은 여전히 “고아”를 남성명사로만 표현하고 있다.

31) 니부어(K.-W. Niebuhr)가 발견한 바 약 4:4에 루터 자신이 만들어 낸 이중 어형은 우리의 검토판에서 보존되지 않을 것이다.

현한 것을 그저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성별을 나타내는 언어에 관해서 유일한 예외는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형제들”이란 호칭이다. 그 중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다른 역본처럼 루터 성경은 이 말을 “형제 자매 여러분”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단 그 현재의 예외범절에 따른 표현(“자매 형제 여러분”)이 아니라, 당시에 쓰는 순서를 지킬 것이다.³²⁾

한 예로 디모데전서 4:6을 들겠다. “Wenn du die *Brüder* dies lehrst, so wirst du ein guter Diener Christi Jesu sein, auferzogen in den Worten des Glaubens und der guten Lehre, bei der du immer geblieben bist” (네가 형제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종이 되어, 네가 머물고 있는 바 믿음의 말과 좋은 가르침의 말로 양육받은 것이 될 것이다, 1984년). “Wenn du die *Brüder und Schwester* dies lehrst, so wirst du ein guter Diener Christi Jesu sein, genährt durch die Worte des Glaubens und der guten Lehre, der du gefolgt bist” (네가 형제 자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너는 하나님의 좋은 종이 되어, 네가 따른 바 믿음과 좋은 가르침의 말로 양육을 받은 것이 될 것이다, 2016/2017년).

이미 사전 점검에서 루터 성경 중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 받은 것은,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창세기 2:18이다. 루터는 1545년 이렇게 번역했다. “VND Gott der HERR sprach / Es ist nicht gut das der Mensch allein sei / Jch wil jm ein *Gehülffen* machen / *die vmb jn sey*”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에게 그의 곁에 있을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1964/1984년판까지는 이 번역을 따랐다. “Und Gott der HERR sprach: Es ist nicht gut, daß der Mensch allein sei; ich will ihm eine *Gehilfin* machen, die *um ihn* sei”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에게 그의 곁에 있을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2016/2017년판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Und Gott der HERR sprach: Es ist nicht gut, dass der Mensch allein sei; ich will ihm eine *Hilfe* machen, die ihm *entspricht*”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에게 맞는 도움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한번 어떤 번역의 약점과 한계를 눈여겨 보게 된 사람이라면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할 다른 구절과 소제목, 부록도 살피게 된다. 번역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말이다. 사물에 대한 설명과 단어 해설에 대한 한 마디를 덧붙이겠다. “사라, 부인 →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사라’

32) 수 2:13; 막 10:30 등.

라는 별도의 표제어로 처리될 것이다.

3.2. 요절

잘 알려진 대로 마틴 루터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많은 난외주와 각주 외에 볼드체로 요절을 강조했다. 오늘날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은 판본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늘어났다.³³⁾ 기본적으로는 루터 번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구절을 강조한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부적인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그 윤곽은 다음과 같다.

- (1) 요절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증언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2) 역사적으로 상당히 증가한 요절의 숫자는 줄여야 한다. 특히 후대에 강조된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이에 해당한다.
- (3) 각 성경 책의 핵심적 신학을 드러내는 진술은 요절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4) 성경 해석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구절은 특별히 고려될 수 있다.

이런 결정에 걸맞는 예로 예레미야 7:3이 있다. “Besser euer Leben und euer Tun, so will ich wohnen an diesem Ort” (너희의 삶과 행실이 더 바르면, 내가 이 장소에 살 것이다). 이 곳에서 굵은 글씨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인데,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수많은 구약의 잠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사야 2:4와 미가 4:3(칼이 보습으로)은 평화를 위한 운동에 갖는 의미 때문에 요절로 받아들여졌다. 또 요엘 4:10(보습이 칼로)에 대한 지시 사항도 덧붙였다.

베드로전서 2:17b의 “Fürchtet Gott, ehrt den König”(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경배하라)는 요절로 강조될 수도 있다. 이 문장이 바르멘 신학 해설에 성서적인 전거가 되기 때문이다.

33) 참조, H. Hövelmann, *Kernstellen der Lutherbibel* [루터 성경의 핵심요절] (Bielefeld: Luther-Verlag, 1989). 뢰펠만 박사에게서 우리는 그의 저서의 결과물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지도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그는 여러 본문에 대해서 요절이 존속, 삭제, 추가,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제안을 해주었다.

3.3. 소제목

루터에게 소급되지 않는 소제목들도 독자들의 내용 파악을 위해서 존속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루터의 언어”와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적절성이나 길이라는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이다. 어떤 소제목은 오늘날 더 이상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가령 이사야 6:1 앞의 소제목 “Das wohlverdiente Gericht”(받아 마땅한 심판)은 “북쪽의 몰락”으로 바뀌야 한다. 예레미야 9:24 앞의 “Israel ein unbeschnittenes Volk”(할례받지 못한 백성 이스라엘)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예레미야 11장 앞의 “Der Bundesbruch des Volkes und Gottes Gericht”(백성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의 계약의 파기)는 “깨진 계약”으로 고쳐야 한다.

4. 남은 문제

4.1. 하나님의 이름과 기독교적 호칭

지도 위원회는 주님의 이름에 대한 네 글자를 작은 대문자로 지금까지 표기하여, 이것이 단순 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임을 분명히 한다. 외경에 빈번히 등장하는 바 “하늘”이라는 말로 바뀌 표현한 것 역시 앞으로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여 은유적 표현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님이란 호칭, 인자 호칭 등에 대한 원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본문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곧 필요하게 될 것이다.

4.2. 칭의의 용어

오늘날 이해하기 어려운 칭의의 언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루터의 용어가 여전히 이해할 만한 것인가, 또는 다른 번역에서 흔히 보듯, 적절할지라도(결에 있을지라도) 잘못된 해석을 야기하는 “그릇된 친구” 같은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반면 바울 서신의 핵심 본문에 놓여 있는 이 교리의 높은 가치를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4.3. 성서 고유 명사에 로쿰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

본 검토는 1984년 개정판이 규정했던 사례를 고수하려 한다. 곧 가능하다면 로쿰 원칙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르는 것이다. 개신교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린 몇몇 이름은 그 다른 표기법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 이런 예외를 줄일 수 있을지는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외경 분과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 표시를 해오고 있다. 로쿰 원칙이 칠십인역의 모든 인명, 지명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위하여 로마 가톨릭과 협의할 계획이다.

4.4. 요절의 최종 확정

이미 3.2에서 논의했지만, 요절에 대한 원칙을 일정 시간 내에 정해야 한다. 모든 다른 규칙이 그러하듯, 문맥과 역사적 정황, 해석사를 고려해야 하는 실제 주요 사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도식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5. 결론

검토자들과 지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경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관찰이 가능하다. 1545/1546년 이후 변모한 루터 성경은 오늘날까지 문제를 양산했고, 늘 새로운 시도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대상이기도 하다. 객관적으로 이 난관은 원문의 어려움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때때로 시대별로 더 이상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번역을 바꿔야 했던 탓도 크다. 언어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만 번역한다면 현재의 점검을 통해서 1545년 루터판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문장은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원칙들은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는 적절할지 몰라도 구체적인 구절에 이르면 여러 관찰의 대상과 강조하는 바가 뒤섞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점검해야 할 본문이 많은 경우, 주의 깊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기일을 잘 지켜서 일을 끝내는 것은 양립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극도로 조심스럽게 일해도 여전히 내려야 할 결정과 제거하지 못한 실수는 남아 있을 것이다. 부디 그것이 적기를 바랄 뿐이다.³⁴⁾

34) 로스톡 회합 당시 모든 강연자가 각자의 노력의 산물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불완전함을

모든 번역이 시간적으로 제한된 것이고 항상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루터는 시편 119:125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서 확인한 바 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가르치셔서 주님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 구절을 루터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시편 기자는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는 이해를 구하고 있다. 성령께서 바로 이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여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잊은 채 남겨두는 것은 문자요, 그가 앞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다. 사람이 이미 얻은 것은, 얻어야 할 것에 비춰 보면 문자에 불과한 것이다.”³⁵⁾

(투고 일자: 2015년 2월 04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2월 27일)

분명히 시인하는 것이 하나의 전형이 되고 말았다. 완전히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성서 번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이며, 아마도 이것에 도달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른다.

35) WA 4, 365,5-14; G. Ebeling, *Luther. Einführung in sein Denken* [루터. 그의 사상에 대한 개관] (Tübingen: J. C. B. Mohr, 1964), 108을 따라 인용함.